

2020.03.26

발신: 주한미군 사령관

수신: 한국내 미 국방부 관련 인원 일동

제목: 군 가족 및 군무원 출국승인

1. 참조:

a. 인원 및 준비태세 담당 미 국방차관실 공문, "코로나19 취약 인원에 대한 출국승인" (2020.03.20)

b. 미 국방차관보 공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미 국방부 예하 군 인원 지침" (2020.03.23)

2. 미 국무부는 자격가족인원(EFM)의 출국승인을 인가함. EFM은 미 국방부 소속 인원 가족, 코로나에 노출 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 군무원,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출국을 요청한 해외 근무자 등을 칭함. 동 인원은 본인의 적절한 이동 수단 및 입국 수용 절차가 반영된 여행 계획을 검증 받은 후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음. 미 국방부는 미국 영토를 코로나19로부터 대피하는 EFM 인원의 은신처로 지정하였으며, 군무원의 경우 버지니아 알링턴(Arlington)을 지정함. 알링턴으로 이동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용 절차는 아직 수립되지 않음.

3. 출국승인하에 출국은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출국을 고민하는 각 개인은 본인의 특정 상황과 현지 상황, 귀국 후 목적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국 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권리는 각 병과에서 판단할 것임. 출국승인에 따른 이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은 해당 지휘계통의 대령급 감독자가 해당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이동 및 수용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것임.

4. 본 안건에 대한 주한미군 담당자는 인사부장 제이슨 나이트(Jason Knight) 대령임. (연락처: DSN 315-755-4101, 이메일 Jason.I.knight10.mil@mail.mil)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미 육군대장

주한미군 사령관